

인류의 모든 현장엔 건축가들이 있었다

‘아키텍트’

스피로 코스토프 지음

지난해 광주시 동구 남동구 시청 사거리 한복판에 오두막 형상의 건축 조형물이 들어서자 밤마다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은 통기타와 작은 북으로 박자를 맞추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기도 한다. 또 동구 장동로터리에 설치된 건축 조형물은 밤이면 LED 조명이 불을 밝혀 연인들이 찾고 있다.

이들 건축물은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어번폴리(Urban Folly)다. ‘폴리(Folly)’는 작은 건물에 장식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을 뜻하며, 이번에 진행된 어번폴리를 통해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광주 도심 10곳에 건축조형물을 세웠다. 이들 건축물은 쇠퇴해가는 구도심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교수였던 스피로 코스토프의 ‘아키텍트’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인 건축가들의 지난 5천 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건축가로서 장애에 불만을 느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개설했는데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진행한 강의 내용을 집대성하고 보강해 책에 담았다. 건축가라는 직업의 형성 및 변천사를 통해 건축의 역사에 접근했고, 고대 이후 건축가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차분히 정리했다.

건축가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임호법이다. 그는 건축뿐 아니라 천



‘아키텍트’는 건축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진은 건축가 후안 에레로스가 장동로터리에 설치한 어번폴리 ‘소통의 오두막’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학자, 미술사, 치료사 등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또 권력자의 바로 곁에까지 올라가는 등 신분도 높았다.

이처럼 인류는 과거부터 유력한 지위를 확보한 채 건축을 시작했다. 세월에 따라 건축가의 신분과 임무는 폭과 깊이가 달라졌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한 분야를 담당했다.

고대 이집트의 유물 파편에 기록된 단서들을 통해 인류 문명 초기 건축가의 모습을 알아냈고, 15세기 이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도 각각 정리해 제시한다.

또 현대 건축계의 기틀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친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미국 건축 실무 현

장을 꼼꼼히 재구성했다.

이 밖에 20세기 들어 건축계에 영향을 미치며 등장한 여성 건축가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됐던 건축계의 당시 풍토 등도 소개한다. 그녀들의 실무 현장 태동기의 모습을 여성 건축가들의 진솔한 회고를 통해 들려준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여성 건축가의 뒷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건축가와 의뢰인의 관계, 권력자와의 관계, 건축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온 건축이라는 직업의 역할과 지위 등 눈여겨볼 이야기도 많다.

〈호형출판·2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0년대 젊은이들의 사랑과 방황

‘녹지대’ 박경리 지음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인공 하인에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큰아저씨 집에 머물며 대학에 가는 대신 녹지대를 드나들며 시인을 꿈꾼다. 대학 등록금을 들고 가솔해 섬에 들어가서 김정현이라는 남자를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지지만, 미스터리 한 삼각관계에 휘말리며 사랑을 키워가지는 못한다.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 갈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소설은 1960년대 쓰여졌지만 인물들의 모습과 고민은 요즘의 그것과 닮았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공감감을 얻을 만한 청춘의 불안과 좌절이라는 주제는 비극적인 전쟁을 겪은 이후의 서울이라는 배경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현대문학·1만2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녀를 빼놓고 한국 현대 문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국문학의 대모 고 박경리의 미출간작 ‘녹지대’(전2권)가 47년 만에 출간됐다.

1964년 6월1일부터 1965년 4월30일까지 부산일보에 연재된 이 소설은 지난 2008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방민호 교수가 서울대 도서관에서 발견했다. 신문에 실린 상태여서 방 교수 등이 일일이 복사해 책으로 펴내게 됐다.

소설은 1960년대 서울 명동의 음악다방 ‘녹지대’를 배경으로 예술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시인, 조각가 등이 등장하며 불륜과 삼각관계에 미스터리 요소까지 곁들여져 그녀의 여타 소설과는 사뭇

불확실한 사회 동·서양 철학으로 버티기

‘철학하라’ 황광우 지음



편에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밀의 ‘자유론’ 등을 소개했다. 동양 편에서는 주로 나의 정체성과 나를 둘러싼 관계의 성찰을 담았고, 서양 편에서는 정치·경제·철학·심리·법·과학을 살펴봤다.

고전 원문을 충실하게 소개하면서 불확실한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사유와 통찰의 힘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자신의 머리로 철학하기’를 강조했다. 사람들은 권위를 숭배하는 것을 좋아해서 사상가들의 말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은 끊임없이 이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정원·2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980년대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들여라 역사의 외침을’ ‘땀땀을 이고 가는 사람들’ 같은 책은 대학생들의 필독서였다.

정인이라는 필명으로 이들 책을 썼던 황광우씨가 동서양의 인문고전 40권에 대해 설명해준 ‘철학하라’를 펴냈다.

동·서양 고전 40편을 자아, 관계, 정치, 경제, 과학 등 분야별로 나눠 철학적 메시지를 담았다. 철학·심리 편에선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등을 토대로 인간 정신 등을 들여다봤다.

또 자아 편에서는 ‘맹자’ ‘순자’ ‘논어’ ‘도덕경’ ‘주역’ 등을 통해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법·경제

영화 칼럼니스트의 책으로의 초대

‘밤은 책이다’ 이동진 지음



영화 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인 이동진씨가 이번에는 ‘영화’가 아닌 ‘책’을 소재로 한 책을 펴냈다.

‘밤은 책이다’는 이씨가 지난 1년간 MBC FM ‘이동진의 꿈꾸는 다락방’의 ‘밤은 말한다’ 코너와 ‘이동진의 문화야 놀자’의 ‘이동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은 글이다.

이씨는 ‘신선한 진부함’이라는 타이틀로 소개한 알랭 드 보통의 ‘우리는 사랑일까’를 비롯해 로버트 T. 케

롤의 ‘회의주의자의 사진’, 최명희의 ‘흔들’, 마르셀 푸르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승욱의 ‘무진 기행’, 크리스토퍼 두드니의 ‘밤으로의 여행’,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왜 우리는 끊임 없이 거짓말을 할까’, 은희경의 ‘새의 선물’ 등 모두 80여권의 책을 언급하고 있다.

이씨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찍은 풍경 사진들도 함께 실려 있다.

〈예담·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인들 삶, 출구는 내안에 있다

‘별의 시간’ 백은아 지음



소설가 백은아가 슬프면서도 경쾌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집 ‘별의 시간’을 냈다.

10편의 단편에는 다양한 인생이 소개된다. 복학 후 고민 끝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새로운 인생을 그리는 ‘나’, 돈 많은 남자를 만나 풍족한 삶을 설계하는 여자, 데이트가 직업인 여자, 제 몸을 팔아 돈을 버는 남자 등 현대 사회의 단면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또 버림에 내몰린 젊은이들의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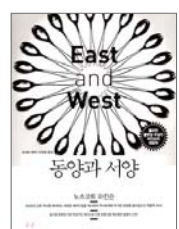
과 현대인에게 필요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새긴다. 이들 소설 속 인물들이 찾아 헤매는 출구가 바로 스스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담담한 문체로 풀어냈다.

1996년 일간스포츠 신춘대상문학상 소설 당선으로 등단했다. 소설집 ‘무지개에는 왜 검은색이 없을까요?’와 장편소설 ‘마녀들의 입회식’ ‘블루칩시티’를 출간했다.

〈문학들·1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역사기록·미래예측... 다시 부상하는 아시아

‘동양과 서양’ 노스코트 파킨슨 지음



‘파킨슨의 법칙’으로 유명한 영국의 해양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이 지은 ‘동양과 서양’ 1963년 초판본을 새롭게 번역해 재출간했다.

동양과 서양이 시소처럼 우위를 점했다가 내추기를 반복하면서 세계사를 엮은 과정을 서술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재부흥과 유럽 연합의 탄생 등을 50여년 전에 이미 예견했다는 점 등이 흥미롭다.

고대에는 동양이 우위를 점했다가 헬레니즘, 로마 시대에 서양에 자리를 내줬으며 중세에 들어와 다시 이슬람과 중국이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설명한다.

근대 들어선 서양이 우세했다가 19세기 중반부터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다고 저자는 풀이했다.

특유의 역사인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인류의 문명사를 새롭게 해석했고, 고대 동양과 로마 제국을 비교해 설명했다.

또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 문명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문명을 뛰어넘어 유럽과 아시아를 모두 포괄하는 세계사를 소개한다. 저자는 세계에서 동서 문명 사이의 교류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중국과 유럽 사이에 이미 기원전 115년께 사신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교역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돼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했다.

〈김영사·2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간

▲나한전 문살에 넣을 농다=평범한 가장이자 직장인 박필우씨가 문화재 답사가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 꾸미지 않는 문체와 멋 부리지 않는 사진·그림을 함께 실어 자신이 보고 느꼈던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거칠지만 솔직하게 담아냈다. 문살에 넣을 농게 되는 영주 성혈사 나한전 등이 소개됐다.

〈서해문집·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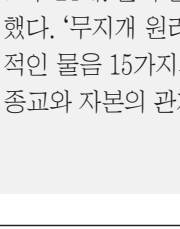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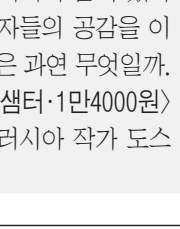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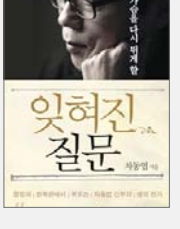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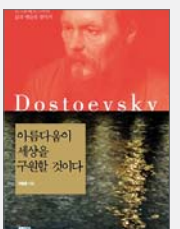
▲파미르에서 원년까지=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상엽씨가 지난 8년에 걸쳐 중국 서부를 기행한 내용을 담았다. 서북쪽 끝인 신장위구르자치구, 적막한 사막 파미르 고원, 눈부신 칭하이성과 쓰촨성, 광활한 무얼까지 초원과 험난한 차마고도 등이 한눈에 펼쳐진다. 이들 지역을 돌며 카메라 영글에 담았던 사진 140장을 곁들여 책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현암사·1만7000원〉

▲15초 생각 뒤집기=15초차 광고장이가 단조로운 일상에서 발견한 광고의 가치와 광고를 만들어내는 혁신적 방법을 소개한 책. 저자는 무심히 지나치는 짧은 15초 광고에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광고로 전해지는 기발한 영상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공감을 끌어내는 크리에이티브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

〈샘터·1만4000원〉

▲아름디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19세기 러시아 작가 도스



또예프스키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책.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러시아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이병훈씨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흔적이 남아 있는 도시를 직접 취재한 기록은 물론 그의 작품과 편지, 주변 사람들의 회상기 등을 더해 작가의 삶을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작가의 말이 생생하게 담겼다.

〈문학동네·1만6000원〉

▲고래의 노래=고래는 가장 사랑받는 포유류 중의 하나다. 북극과 남극을 오가며 기후변화 문제를 취재했던 저자가 ‘지나칠 수 없는 매혹적인 대상’ 고래의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고래가 음파를 이용해 세상의 지도를 인식한다는 사실, 고래가 도구를 이용하고 문화를 계승·전달한다는 사실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생생한 고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곁들였다.

〈공리·2만5000원〉

▲잊혀진 질문=이병철 삼성 회장은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전 서울 집무실상당의 박희봉 신부(1988년 작고)에게 질문서를 보냈다. 이 회장의 구술을 필경사가 받아 적은 질문은 모두 24개. 신의 존재와 창조론부터 과학과 종교, 종말론까지 다양했다. ‘무지개 원리’의 저자 차동엽 신부가 이 회장의 질문을 근본적인 물음 15가지와 여기서 파생된 물음 11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종교와 자본의 관계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명진출판·1만6000원〉

▲바느질하는 아이=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건 뭐가? 포레 남자 아이들과는 달리 친구들과 수다 떨고 인형옷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열 세살 상훈이는 자신의 그런 행동이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되고 가족마저도 이해해 주지 않아 괴롭기만 하다. 그러던중 우연히 만난 재영이라는 여자아이를 통해 상훈이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파랑새·9500원〉

▲성냥팔이 소녀 알리메트=어린이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토미 웅거러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안데르센의 동명의 동화를 새롭게 고쳐 쓴 것으로 원작의 가녀린 소녀는 씩씩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바탕으로 구호 활동을 펼친다.

〈초록개구리·1만1000원〉

▲이야기로 보는 환경 지도책=세계의 멸종 동물=에어컨의 온도를 마구 낮추고 종이를 함부로 낭비하는 푸름이가 사라질 위기에 처



한 동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정보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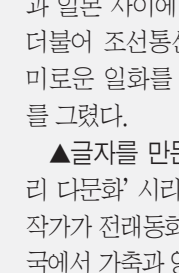
〈휴이님·1만2000원〉



▲노빈손 조선통신사의 누명을 벗겨라=경마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노빈손이 조선통신사 행렬이 그려진 그림을 보던중 1636년의 조선에 떨어져, 조선통신사에 합류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렸다. 조선

과 일본 사이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린 역사와 더불어 조선통신사의 문화 전파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를 풀어냈다. 이우일이 일러스트를 그렸다.

〈뜨인돌·9500원〉



▲글자를 만든 창힐=정인출판사의 ‘색종다리 다문화’ 시리즈 첫번째 권으로 다문화 엄마 작가가 전래동화 2편을 골라 한글로 옮겼다. 중국에서 가족과 양식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만 글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창힐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기 시작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일본, 몽골 등 총 7개국의 이야기가 출간된다. <정인출판사·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